



한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팬데믹 도상훈련 실시

2026년 2월 5일, 대한민국 서울 – 대한민국 정부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는 향후 팬데믹 위협 발생 시 신속하게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가상의 팬데믹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재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선도하는 질병관리청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도상훈련이다.

회의에는 위협 탐지부터 필수 의료 수단의 허가에 이르기까지 팬데믹 대비 전주기를 담당하는 국내 유관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며, 이전에 출현한 적 없는 치명적인 가상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및 그 이후 축적된 기술과 지식, 계획을 활용하여 연구개발(R&D), 제조 및 백신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보건 비상사태에 앞서 대비 태세를 개선하며 병목 요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도상훈련은 신종 감염병 및 팬데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과학·규제·제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팬데믹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보건 회복력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팬데믹 대응에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식약처·CEPI·IVI와의 공동 도상훈련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작동하는 백신 개발·규제 연계 체계를 점검하고, 한국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해 백신 신속 개발과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허가·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PI 리처드 해켓 대표는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향후 유사한 규모의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가상 팬데믹 도상훈련을 통해 한국은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섹터와 협력하는 한국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은 우리의 강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선제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감염병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 준 파트너들과 훈련 참가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CEPI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신종 팬데믹 위협 발생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100 일 이내에 개발하는 ‘100 일 미션(100 Days Miss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첫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간을 3 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는 이 전략은 팬데믹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한국은 백신 제조 및 팬데믹 대응 분야의 선도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강력한 파트너십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동 훈련은 국가적 대비 태세와 글로벌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IVI가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주요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과학, 정책, 산업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팬데믹 대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적기에 백신을 개발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CEPI의 핵심 투자국이자 주요 파트너이다. 현재 CEPI는 29 개의 한국 파트너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100 일 미션’ 실행을 가속화하고,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기관들은 CEPI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중앙실험실 네트워크(CLN), 백신 제조 네트워크(VMN),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AL) 등에 참여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편집자 주:

CEPI는 정부 주도하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신속한 백신 R&D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시범 훈련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대비 훈련은 팬데믹 준비 태세를 진단하고 개선 기회를 식별하는 데 기여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100 일 미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위협 감지부터 연구개발(R&D), 제조, 규제 및 허가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발생에 대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전주기(End-to-End) 백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